

■ 주요 뉴스: 파월 연준 의장,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안정 위한 금리인상 지속 의지 강조

- 미국 7월 PCE 가격지수,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조짐
- ECB 주요 인사,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5bp 금리인상 지지 표명
- 미-중,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 협상에 합의

■ 국제금융시장: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강한 물가안정 의지 파력에 주목
주가 하락[-3.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큰 폭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으로 1.7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 연설에 따른 연준 통화긴축 지속 전망으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8%, 0.1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강한 물가안정 의지를 반영하면서 상승
독일은 9월 ECB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7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41.22원, 10.42원) 0.8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8/26일	8/25일	전일대비			8/26일	8/2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57.7	4,199.1	-3.37%	국채 금리 10y	미국	3.04%	3.03%	2bp
	유럽	426.09	433.36	-1.68%		독일	1.39%	1.32%	7bp
	중국	3,236.2	3,246.2	-0.31%	CDS 5y	한국	35bp	33bp	2bp
	일본	28,641	28,479	0.57%		중국	70bp	66bp	3bp
	한국	2,481.0	2,477.3	0.15%	위험 지표	EMBI+	421	417	4bp
환율	달러지수	108.80	108.47	0.31%		VIX	25.56	21.78	17.36%
	유로화	0.9966	0.9975	-0.09%		WTI유	93.06	92.52	0.58%
	엔화	137.64	136.49	-0.84%	원자재	구리	369.7	369.9	-0.05%
	위안화	6.8718	6.8493	-0.33%		금	1,738.1	1,758.7	-1.17%
	원화	1,331.3	1,335.2	0.2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파월 연준 의장,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 안정 위한 금리인상 지속 의지 강조

-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2%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긴축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.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실현 책무는 '무조건적'이라고 강조하는 한편, 현재 통화긴축을 중단할 여력이 없으며 역사는 선부를 긴축완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발언
- 또한 인플레이 통제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.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, 물가안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실직, 가계 부담 확대 등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
- 같은 날 패트릭 허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지속하고 높은 수준에서 적정기간 유지해야 하며 금리인하 거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. 연준이 경기침체 유발 없이 통화긴축을 이어갈 수 있으며,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그 기간은 짧고 깊지 않을 것이라 발언
- 리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7월 PCE 가격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9월에 50bp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발언. 다만 연준이 금년 3.5~3.75%로 금리를 인상한 후 동 수준을 유지하기 원한다면서, '23년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'라 강조
- 시장은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해 예상대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. 연설 후 미 국채금리는 장기물보다 단기물에서 더 크게 상승하고,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었으며, 다우, S&P500, 나스닥 등 주요 주가지수 모두 3% 이상 급락
- Fitch Ratings의 Brian Coulton은 큰 폭의 금리인상이 수차례 잇따르면서 정책금리가 중립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'23년 내내 유지될 가능성 제시. Cornerstone Wealth의 Cliff Hodge는 연준이 성장을 대가로 공격적 긴축을 지속하면서 경제 연착륙 여가 급감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CB 주요 인사,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5bp 금리인상 지지 표명

- ECB 내 대표적 매파인 로버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9월 75bp 인상을 논의해야 하며, 물가상승 압력 고착화 조짐에 나타나면서 최소 50bp를 인상해야 한다고 발언
- 클라스 노트 ECB 정책위원 역시 9월 최대 75bp 인상 지지를 밝히면서, 현재 유럽의 인플레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 2% 부근에서 물가안정 전까지 매 6주마다 금리인상을 주장

■ 미국 7월 PCE 가격지수,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조심

- 7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.3% 상승하면서 40년여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6월(6.8%)보다 둔화되고 전월비는 0.1% 하락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년동기대비 4.6% 상승해 전월(4.8%)보다 둔화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이 강화
- 바이든 대통령은 PCE 가격지수 발표에 대하여 미국경제에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피력. 지난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 부연

■ 미-중,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독권 협상에 합의

-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(PCAOB)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및 홍콩 기업들에 대하여 중국의 합의나 간섭 없이 조사 대상 기업 선정, 회계 감독 및 잠재적 위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얻게 되었다고 발표
- PCAOB는 금번 합의가 지금까지 중국과 맺은 합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라 표명.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SEC)도 양국간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중대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관련 시장 우려가 해소

■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, -36.5로 예상치(-32.0) 큰 폭 하회하며 사상 최저치 경신

- GfK는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-36.5로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. 8월 지수도 -30.6에서 -30.9로 수정했으며, 가계가 향후 수개월간 에너지비용 급증 우려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, 겨울철 가스공급이 부족해질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6일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PCE 가격지수(전년동기비): 6.3%, 6월(6.8%), 예상치(6.4%)
- 미국 7월 근원 PCE 가격지수(전년동기비): 4.6%, 6월(4.8%), 예상치(4.7%)
-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(확정치): 58.2 7월(51.5), 예비치(55.1)
-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(전월비): 0.1%, 6월(1.1%), 예상치(0.5%)
- 미국 7월 개인소득(전월비): 0.2%, 6월(0.6%), 예상치(0.6%)
-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: -36.5, 8월(-30.9), 예상치(-32.0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29, E-mail skkim@kcif.or.kr